

여자 청소년의 자기/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이혜선(Hye Sun Lee), 김정민(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rgiveness or the forgiveness of others and eating attitude.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o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700 female adolesc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Incheon and Daegu. Among 683 distributed questionnaires, 640 were se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2.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grad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forgiveness, guilt and eating attitude. Religion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ny of the variables. Secondly, female adolescents'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and sham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heir eating attitude. Lastly, sham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rgiveness and eating attitude.

▲주제어(Key Words) : 자기용서(self-forgiveness), 타인용서(the forgiveness of others), 수치심(shame), 죄책감(guilt), 섭식태도(eating attitude)

I. 서론

최근 마른 체형을 이상적 가치로 삼는 경향(ideal thin)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 또는 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과도한 다이어트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체중 조절 행동은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청소년기의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청소년의 약 24.8%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중 76.4%가 체

중 감소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W. M. Felts, A. V. Parrillo, T. Chenier, & P. Dunn, 199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여고생의 58.3%가 지난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 R. Ryu, R. M. Lyle, & G. P. McCabe,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들의 72.5% 정도가 자신이 뚱뚱하거나 비만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대상자 중 75.4%는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 Kim, & H. Yoon, 2000), 서

*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Tel: +82-2-300-0603, E-mail: jmkim122@nju.ac.kr

울시 여중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상자 중 약 47.3%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다고 보고하였다(S. Park, 2001). 이러한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섭식 조절 및 다이어트의 실패와 반복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어지러움, 빈혈, 조기 폐경 등의 신체적 문제들을 야기하며(Y. Bae, S. Kim, & B. Sung, 2004; W. Dejong, 1980; M. J. Mallick, 198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M. Park, & Y. Choi, 1998), 심한 경우 섭식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B. Fredrickson, & T. Roberts, 1997).

섭식태도(eating attitude)란 섭식장애 연속성(eating disorder continuum)의 개념에 따라 반복적인 다이어트나 폭식 행동을 나타내지만 임상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집단 뿐 아니라 신경성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진단된 임상 집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가리킨다(I. F. Dancyger, & P. E. Garfinkel, 1995; M. R. Lowe et al., 1996; E. Stice, C. Ziemba, J. Margolis, & P. Flick, 1996; T. L. Tylka, & L. M. Subich, 1999). 이러한 섭식태도의 경향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 극단적인 다이어트 행동, 섭식의 과잉 통제 또는 적절한 통제의 부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섭식 관련 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빈번히 나타나며(H. T. Wittchen, & F. Jacobi, 2005),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 H. Strigel-Moore et al., 2005). 더욱이 섭식 관련 장애는 우울, 자살,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를 겪을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나(B. Fredrickson, & T. Roberts, 1997; E. Stice, C. Hayward, R. J. D. Cameron, & C. B. Taylor, 2000) 여자 청소년 및 성인 집단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10대 정신 장애들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C. D. Mathers, E. T. Vos, C. E. Stevenson, & S. J. Begg, 2000).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관련한 것들로 날씬함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인 기준 및 대중매체가 과도한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R. H. Striegel-Moore, L. R. Silberstein, & J. Rodin, 1986; J. K. Thompson & E. Stice, 2001; M. A. Wiseman, J. J. Gray, J. E. Mosimann, & A. H. Ahrens, 1992).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접근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변인 외에 개인의 성격, 정서, 대인관계 등 개인적인 변인들과 섭식 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치료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C. G. Fairburn, P. J. Cooper, & R. Shafran, 2003).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들에는 자의식, 자기 비난, 완벽주의 성향, 자아존중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신념 등이 보고되었다(A. M. Bardone-Cone et al., 2007; C. G. Fairburn et al., 2003; H. Kim, & K. Park, 2009). 이들은 성격 혹은 인지적 특성으로 자기(self) 관련 변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섭식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는데,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우울, 불안 등 특정 정서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P. J. Cooper, & C. G. Fairburn, 1993; M. P. McCabe, & M. A. Vincent, 2003; W. So, 2009), 심각한 섭식 문제를 보이는 섭식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J. Bae, & J. Choi, 1997; A. A. Joos et al., 2012; J. Lee, H. Jo, M. Shin, & J.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섭식 문제와 자기 관련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근거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으로 자의식 정서에 주목하였다.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는 자기 인식과 더불어 나타나는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자기평가적(self-evaluation) 요소를 갖는다(J. P. Tangney, 2002). 또한 기본적인 일차 정서들에 비해 복잡한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차 정서라고도 불리며(M. Lewis, S. Alessandri, & M. W. Sullivan, 1992),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라고도 불린다(J. P. Tangney, & R. L. Dearing, 2002). 자의식 정서에는 자괴심, 수치심, 죄책감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신이 세운 기준, 규칙, 목표 등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릴 때, 혹은 타인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이다(M. Lewis, 1971).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폭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고, 날씬함에 대해 높은 기준을 매기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의식 정서가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치심(shame)이란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며,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부정적 자기 평가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G. Kaufman, 1989; J. P. Tangney, P. E. Wagner & R. Gramzow, 1992; M. Wells, & R. Jones, 2000). 날씬한 몸매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체형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인 매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여성들의 자존감 및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 Grabhorn, W. Köpp, W. Gitzinger, J. Wierthershiem, & J. Kaufhold, 2003; M. Lewis, 1971). 수치심이 높을수록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좌우되기 쉬우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낮은 자존감 및 왜곡된 자기상을 갖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S. L. Bartky, 1988; I. Ga, & M. Hyun, 2006). 또한 수치심은 다이어트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다이어트가 반복이 되면 섭식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 Stice, 2002). 한편, 죄책감(guilt)은 개인이 스스로 세운 내적 기준을

어졌을 때 생기는 주관적인 반성의 정서로(R. Hogan, & J. Cheek, 1983) 긴장, 후회 등을 동반하며 이후 자발적인 고백, 사과, 보상을 동기화한다(J. P. Tangney, 2002). 죄책감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는 보상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폭식행동은 부적응적인 보상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폭식 행동은 종종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회피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R. C. Hawkins, & P. F. Clement, 1984; C. P. Herman, & J. Polivy, 1988), 실제로 수치심, 죄책감, 불안 등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폭식 행동을 하며, 폭식 행동을 함으로써 죄책감, 불안 등이 낮아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다(J. Lee, 2000; J. Sanftner, & J. H. Crowther, 1998; W. So, 2009). 또한 죄책감은 개인의 내적 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그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용서와 타인용서를 살펴보았다. 자기용서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M. Baker, 2008),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 Halling, 1994; M. J. A. Wohl, L. Deseha, & R. L. Wahkinney, 2008). 이러한 자기용서는 외적인 규제보다 자신의 기준 혹은 기대치에 의해 좌우되는 자기 개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섭식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자기 비난은 신경성 폭식증의 위험을 높이며, 과도한 체중 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 M. Dunkley, R. M. Masheb, & C. M. Grilo, 2010; L. Taranis, & C. Meyer, 2010). 또한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이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J. Park, M. Shin, & E. Kim, 2011).

타인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복수와 회피의 동기가 감소하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R. D. Enright, 1996; M. E. McCullough, 2001). 타인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높은 공격성과 높은 분노 수준, 낮은 사회적 기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P. A. Mauger et al., 1992). 실제로 섭식장애 환자의 약 62% 정도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 B. Herzog, M. B. Keller, & P. W. Lavori, 1988).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폭식증의 경우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S. Fassino, G. A. Daga, A. Piero, P. Leombruni & G. G. Rovera, 2001).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와 상호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각의 기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각 변인들은 연령 또는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자의식 정서와 섭식태도는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제 2의 탄생기'라고 할 만큼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기(self)'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자아 정체감의 위기나 혼란을 겪게 된다(E. Erikson, 1968).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심리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2차 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변화 역시 신체 자아에 대한 불안감과 정서적 불안정을 심화시킨다(Y. Kim, 2009; M. Lee, & B. Moon, 2000). 특히 섭식태도는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이 되며, 연령에 따라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자아 및 정서의 발달 및 표현도 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어(S. Bartle Haring, 1997; K. Shorter Gooden, & N. C. Washington, 1996) 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기용서, 타인용서는 종교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종교의 교리들에서 용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용서가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영적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용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D. E. Davis, J. N. Hook, D. R. Van Tongeren, A. L. Gartner, & E. L. Jr. Worthington, 2012; G. Kim, 1999; W. A. Mirola, 1999; C. J. Nelson, B. Rosenfeld, W. Breitbart, & M. Galiotta, 2002; M. M. Poloma, & G. H. Gallup, 1991; A. Shoemaker, & M. Bolt, 199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연령(중학생 및 고등학생) 및 종교 유무에 따라 각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심 또는 죄책감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A. W. Donald, H. G. David, C. W. Philip, & G. S David, 1993; T. F. Heatherton, & R. F. Baumeister, 1991; K. Vitousek, & F. Manke, 1994),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치심, 죄책감, 자기비하,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지기 쉬울 뿐 아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폭식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관계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 Burney, & H. J. Irwin, 2000; J. Hayaki, M. Friedman, & K. D. Brownell, 2002; C. Murray, & G. Waller, 2002; J. L. Sanftner, D. H. Varlow, D. E. Marschall, & J. P. Tangney, 1995), 이는 이상 섭식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 Chassler, 1997). 이들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 또는 죄책감을 자기/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학년 및 종교 유무에 따라 자기용서, 타인용서, 섭식태도, 수치심 및 죄책감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 및 죄책감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및 대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 중학교 2개교의 1학년 168명, 2학년 186명, 여자 고등학교 2

개교의 1학년 141명, 2학년 145명을 포함한 총 640명의 질문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은 중학생 354명(55.3%), 286명(44.7%)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186명(29.1%), 중학생 1학년 168명(26.3%), 고등학교 2학년 145명(22.7%), 고등학교 1학년 141명(22.0%)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343명(53.6%), 기독교 180명(28.1%), 천주교 61명(9.5%), 불교 50명(7.8%), 기타 6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자기용서

M. J. Wohl et al.(2008)이 개발한 자기용서 상태 척도(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 SSFS)를 S. Bae(2010)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용서 상태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 SSF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아니다(1)', '약간 그렇다(2)', '상당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용서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2) 타인용서

J. Kim, & S. Kwon(2009)이 개발한 용서 특질 척도(Forgiveness Trait Scale: FT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평소에 타인을 향한 용서에 관한 가치관 및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아니다(1)', '약간 그렇다(2)', '상당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용서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40)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School	Middle School	354(55.3)
	High School	286(44.7)
Grade	Middle School 1Th	168(26.3)
	Middle School 2Th	186(29.1)
	High School 1Th	141(22.0)
	High School 2Th	145(22.7)
Religion	Christianity	180(28.1)
	Buddhism	50(7.8)
	Catholicism	61(9.5)
	No Religion	343(53.6)
	Other	6(0.9)

3) 수치심과 죄책감

J. P. Tangney et al.(1989)가 개발한 자의식 정서 척도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 TOSCA)와 아동용 자의식 정서 척도(TOSCA-C), 청소년용 자의식 정서 척도(TOSCA-Adol)를 바탕으로 S. Ryu(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12가지의 상황이 제시되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측정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 '그렇지 않을 것이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럴 것 같다(4)', '매우 그럴 것 같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 및 죄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2였으며, 수치심의 Cronbach's α 값은 .78, 죄책감의 Cronbach's α 값은 .76이었다.

4) 섭식태도

D. M. Garner(1991)가 개정한 섭식장애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를 I. Lee(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불만족', '폭식' 등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약간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였으며, 마르고 싶은 욕구의 Cronbach's α 값은 .83, 신체 불만족의 Cronbach's α 값은 .84, 폭식의 Cronbach's α 값은 .75였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9월 5일 서울에 소재한 S여자중학

교 중학생 1, 2학년생 20명과 Y여자고등학교 1, 2학년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문항의 이해와 답변이 원활함을 확인하였고,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 인천 및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여자 중학교 1, 2학년생과 여자 고등학교 1, 2학년생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 및 회수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회수된 683부 중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43부를 제외한 남은 64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Pearson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자 청소년의 학년 및 종교 유무에 따른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식태도의 차이

1) 학년에 따른 변인의 차이

여자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Table 2. Difference i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by Grade

Variables	Middle School Student (N=354)	High School Student(N=286)	t
	M(Sd)	M(Sd)	
Self-Forgiveness	47.81(7.19)	45.38(7.95)	4.05***
the forgiveness of others	22.50(5.68)	23.03(5.96)	-1.16
Self-Conscious Emotion	82.92(12.16)	81.94(12.28)	1.01
Shame	37.38(8.30)	37.70(8.12)	-.48
Guilt	45.54(6.65)	44.25(6.36)	2.50*
Eating Attitude	64.89(15.58)	68.00(15.84)	-2.49*
Desire for slimness	21.45(6.55)	22.40(6.46)	-1.82
Body dissatisfaction	28.99(6.97)	29.86(7.35)	-1.52
Excessive eating	14.45(5.27)	15.74(5.56)	-3.01**

* $p < .05$, ** $p < .01$, *** $p < .001$

와 같다. 자기용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t=4.05, p<.001$), 중학생($M=47.81, SD=7.19$)이 고등학생 ($M=45.38, SD=7.95$)보다 높았다. 자의식 정서 중 죄책감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2.50, p<.05$), 중학생($M=45.54, SD=6.65$)이 고등학생($M=44.25, SD=6.36$)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년에 따라 전체 섭식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2.49, p<.05$), 고등학생($M=68.00, SD=15.84$)이 중학생($M=64.89, SD=15.58$)보다 높았다. 섭식태도의 하위 영역인 폭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301, p<.01$), 고등학생($M=15.74, SD=5.56$)이 중학생($M=14.45, SD=5.27$)보다 높았다. 반면, 타인용서, 수치심, 그리고 섭식태도의 하위 영역 중 마르고 싶은 욕구와 신체불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종교 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

종교 유무에 따라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타인용서, 수치심 및 죄책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섭식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관계분석에서 섭식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서 학년에 차이에 따라 변인에 차이가 있었기에 학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Table 3. Difference in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Guilt and Eating Attitude by Religion

Variables	Religion(N=297)	No Religion(N=343)	t
	M(SD)	M(SD)	
Self-Forgiveness	47.27(7.65)	46.25(7.58)	1.67
the forgiveness of others	23.07(5.83)	22.45(5.79)	1.33
Self-Conscious Emotion	82.42(12.62)	82.54(11.86)	-.13
Shame	37.42(7.89)	37.61(8.50)	-.30
Guilt	45.00(6.87)	44.93(6.26)	.14
Eating Attitude	65.92(15.40)	66.59(16.07)	-.53
Desire for slimness	21.87(6.38)	21.88(6.65)	-.02
Body dissatisfaction	29.08(7.23)	29.64(7.08)	-.98
Excessive eating	14.97(5.13)	15.07(5.70)	-.24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								
2	.12**	-							
3	-.36***	-.02	-						
4	.05	.36***	.36***	-					
5	-.22***	.18***	.87***	.78***	-				
6	-.21***	-.10**	.28***	-.03	.17***	-			
7	-.27***	-.12**	.24***	-.06	.13**	.63***	-		
8	-.30***	-.15**	.29***	-.05	.19***	.44***	.46***	-	
9	-.31***	-.15***	.32***	-.06	.19***	.85***	.87***	.73***	-

1. Self-Forgiveness, 2. the forgiveness of others, 3. Shame, 4. Guilt, 5. Self-Conscious Emotion, 6. Desire for slimness, 7. Body dissatisfaction, 8. Excessive eating, 9. Eating Attitude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Female Adolescents'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Eating Attitud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 ²	ΔR^2	F
Desire for slimness	1	Shame	.19	.23***	.08		52.59***
	2	Self-Forgiveness	-.10	-.11**	.09	.01	31.17***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0	-.09*	.10	.01	22.57***
Body dissatisfaction	1	Self-Forgiveness	-.18	-.20***	.07		49.64***
	2	Shame	.15	.17***	.09	.02	33.74***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1	-.09*	.10	.01	24.57***
Excessive eating	1	Self-Forgiveness	-.14	-.19***	.09		61.86***
	2	Shame	.14	.22***	.13	.04	46.24***
	3	the forgiveness of others	-.12	-.13**	.14	.01	34.83***
	4	Grade	.99	.09*	.15	.01	27.80***
Eating Attitude	1	Shame	.47	.25***	.11		74.74***
	2	Self-Forgiveness	-.43	-.21***	.15	.04	55.06***
	3	the forgiveness of others	-.32	-.12**	.16	.01	40.70***

* $p < .05$, ** $p < .01$, *** $p < .001$

학년(중학생=0, 고등학생=1)로 하여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공선성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83-.99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02-1.21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 계수가 1.83-1.97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수치심($\beta=.25$, $p<.001$), 자기용서($\beta=-.21$, $p<.001$), 타인용서($\beta=-.12$,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서 수치심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4.74$, $p<.001$). 자기용서는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55.06$,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섭식태도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총 16%로 나타났다($F=40.70$,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전체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수치심($\beta=.23$, $p<.001$), 자기용서($\beta=-.11$, $p<.01$), 타인용서($\beta=-.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 수치심이 전체 변량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2.59$, $p<.001$). 자기용서는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31.17$,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 미만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2.57$,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용서($\beta=-.20$, $p<.001$), 수치심($\beta=.17$, $p<.001$), 타인용서($\beta=-.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 자기용서는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9.64$, $p<.001$). 수치심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33.74$, $p<.001$), 타인용서는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4.57$, $p<.001$). 죄책감 및 학년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용서($\beta=-.21$, $p<.001$), 수치심($\beta=.21$, $p<.001$), 타인용서($\beta=-.12$, $p<.01$), 학년($\beta=.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 자기용서는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86$, $p<.001$). 수치심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46.24$, $p<.001$), 타인용서는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34.83$, $p<.001$), 학년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7.80$, $p<.001$). 죄책감은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죄책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단순회귀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분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1982) 검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87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15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D-W계수가 1.84-1.9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36, p < .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beta = -.31, p < .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beta = .24, p < .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전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 = -.22$).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전체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5.26, p < .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하위 영역인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36, p < .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 미치는 영향($\beta = -.21, p < .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beta = .23, p < .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 = -.12$).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마르고 싶은 욕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96, p < .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Self-Forgiveness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s	β	R ²	F
Desire for slimness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Desire for slimness	-.21 ***	.04	28.46 ***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Desire for slimness Shame→Desire for slimness	-.12 ** .23 ***	.09	31.17 ***
Body dissatisfaction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Body dissatisfaction	-.27 ***	.07	49.64 ***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Body dissatisfaction Shame→Body dissatisfaction	-.21 *** .17 ***	.10	33.74 ***
Excessive eating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Excessive eating	-.30 ***	.09	61.86 ***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Excessive eating Shame→Excessive eating	-.22 *** .21 ***	.13	46.24 ***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Mediator	Self-Forgiveness→Shame	-.36 ***	.13	97.61 ***
	2. Independent→Dependent	Self-Forgiveness→Eating Attitude	-.31 ***	.10	67.83 ***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Self-Forgiveness→Eating Attitude Shame→Eating Attitude	-.22 *** .24 ***	.15	55.06 ***

* $p < .05$, ** $p < .01$, *** $p < .001$

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36, p < .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신체불만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beta = -.27, p < .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beta = .17, p < .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 = -.21$).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79, p < .001$).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인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 = -.36, p < .001$), 2단계에서 자기용서가 폭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beta = -.30, p < .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수치심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beta = .21, p < .001$)이 유의한 동시에 자기용서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 = -.22$). 그러므로 수치심은 자기용서와 폭식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또한 수치심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96, p < .001$).

4. 여자 청소년의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심의 매개효과

여자 청소년의 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갖는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단순회귀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1.00로 .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은 1.00로 모두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결과, D-W 계수가 1.81-1.95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각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타인용서가 매개변인인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치심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Female Adolescents' Sham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Forgiveness of Others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s	β	R ²	F
Desire for slimness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Desire for slimness	-.10**	.01	6.81**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Desire for slimness Shame→Desire for slimness	-.10* .27***	.09	29.84***
Body dissatisfaction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Body dissatisfaction	-.12**	.01	8.94**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Body dissatisfaction Shame→Body dissatisfaction	-.11** .24***	.07	24.27***
Excessive eating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xcessive eating	-.15***	.02	14.59***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xcessive eating Shame→Excessive eating	-.14*** .29***	.11	37.48***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Mediator	the forgiveness of others→Shame	-.02	.00	.23
	2. Independent→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ating Attitude	-.15***	.02	14.18***
	3. Independent→Dependent Mediator→Dependent	the forgiveness of others→Eating Attitude Shame→Eating Attitude	-.14*** .32***	.13	45.43***

* $p < .05$, ** $p < .01$, *** $p < .001$

5.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죄책감의 매개효과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 및 타인용서와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갖는 매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죄책감은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 모델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자기/타인용서, 수치심, 죄책감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자기용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타인용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기용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기 개념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더 의식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난다(S. Harter, 1990; J. Shin, 2005). 이렇듯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도록 이끌며, 실패에 따른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혹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대 행동, 역할 수행, 성취 등이 부과되는 사회적 경향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의식 정서 중 죄책감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J. Han,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조망 수용, 귀인 등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R. A. Thompson, 1989)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축적된 후에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섭식태도, 특히 폭식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섭식장애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J. H. Beak,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3)의 '섭식장애 진료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식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2)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모나 체형에 대

한 관심, 다이어트 시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이며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어 지나친 다이어트 등의 체중 조절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시도들의 실패가 반복 및 축적됨으로 인해 섭식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마르고 싶은 욕구나 신체불만족과 같은 섭식문제에 비해 폭식 행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병리적 증상이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 중 마르고 싶은 욕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수치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수치심이 광범위한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J. Burney, & H. J. Irwin, 2000; J. Hayaki et al., 2002; C. Murray, & G. Waller, 2002; J. L. Sanftner et al., 1995)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의식 정서 가운데 특히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의와 평가를 전제로 하므로 마른 체형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외모 또는 체형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의 대상이 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높을 경우 체중 감량의 욕구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치심이 높을 경우 자기 자신을 외부에 노출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자기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더욱 염려하여(M. Lewis, 1971), 날씬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부합하는 마른 신체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섭식태도 중 신체불만족과 폭식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기용서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몰두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및 기준과 관계가 있다(E. Stice, & E. S. Heather, 2002). 선행 연구 결과, 폭식 또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M. Bardone-Cone et al., 2007; L. R. R. Lilenfeld, S. Wonderlich, L. P. Riso, R. Crosby, & J. Mitchell, 2006; S. P. Mackinnon et al., 2011).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쉽게 좌절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자기 초점(self-focus)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폭식을 하게 된다(S. Blackburn, L. Johnston, N. Blamiered, D. Popp, & R. Kallen, 2006; T. F. Heatherton, & R. F. Baumeister, 1991). 즉, 신체불만족과 폭식이 자기 기준과 연관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자기 수용 및 존중과 관련이 있는 자기용서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또 다른 자의식 정서인 죄책감은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기(self) 보다 특정 행위(behavior)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self)에 대한 평가

에 초점을 둔 수치심에 비해 자기 가치감 및 자기 기능에 미치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J. Kim, 2010; M. Lewis, 1971; N. Lutwak, J. Panish, & J. R. Ferrari, 2002; J. P. Tangney, & R. L. Dearing, 2002) 섭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한편, 죄책감은 폭식 행동을 하는 도중이나 폭식을 한 이후, 또는 반복적인 체중 조절 시도의 실패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APA, 1994; C. Johnson, & R. Larson, 1982; L. Mary, 2009). 이상 섭식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이기보다 섭식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섭식태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개인의 내적 기준의 위배로 경험 되는 죄책감의 경우 섭식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축적된 후에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심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용서가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기용서가 수치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수치심의 수준에 따라 섭식문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접근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수치심이 높을 경우, 자기용서와 관련이 있는 완벽주의 성향, 절대주의적 사고 등을 다루어 줌으로써 자기 수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기주의 수준을 낮추는 처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논의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출되었으나, 여자 성인, 남자 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표집 범위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신체질량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이를 변인으로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FERENC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Anger and personality in eating disord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 757-764..
 Bae, J.-H., & Choi, J.-Y. (1997). A comparison with restrained, unrestrained (normal) eaters, and over-

weighters = A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ting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09-217.
 Bae, S. H.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ate self-forgiveness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Bae, Y. J., Kim, S. T., & Sung, B. J. (2004). Body dissatisfaction, eating attitude, obesity related stress, and exercise behavior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in female teenagers. *Korea Sport Research*, 15(4), 881-889.
 Baker, M. (2008). *Self-forgiveness: An empowering and therapeutic tool for working with women in recovery*. In Malcom, W., DeCourvoile, N., & Belicki, K. (Eds.), *Women's reflections on the complexities of forgiveness*. New York: Routledge.
 Bardone-Cone, A. M. Wonderlich, S. A., Frost, R. O., Bulik, C. M., Mitchell, J. E., Uppala, S., & Simoniich, H. (2007).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3), 384-405.
 Bardone-Cone, A. M., Wonderlich, S. A., Frost, R. O., Bulik, C. M., Mitchell, J. E., Uppala, S., & Simoniich, H. (2007).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384-405.
 Bartky, S. L. (198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In irene diamond and lee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pp. 61-8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Bartle Haring, S. (1997).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differentiation, sex role orient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20(5), 663.
 Beak, J. H. (2007). *The influences of female adolescents' shame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anxiety and eat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Burney, J., & Irwin, H. J. (2000). Shame and guilt in women with eating-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51-61.
 Chassler, L. (1997). Understanding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from an attachment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5(4), 407-423

- Cooper, P. J., & Fairburn, C. G. (1993). Confusion over the core psychopathology of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2, 385-389.
- Dancyger, I. F., & Garfinkel, P. E. (1995). The relationship of partial syndrome eating disorders to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25, 1019-1025.
- Davis, D. E., Hook, J. N., Van Tongeren, D. R., Gartner, A. L., & Worthington, E. L. Jr. (2012). Can religion promote virtue?: A more stringent test of the model of relational spirituality and forgiven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2, 252-266.
- DeJong, W. (1980). The stigma of obesity: The consequences of naïve assumptions concerning the causes of physical devia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75-87.
- Donald, A. W., David, H. G., Philip, C. W., & David, G. S. (1993). Validation of self-body size discrepancy as measure of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5(1), 57-68.
- Dunkley, D. M., Masheb, R. M., & Grilo, C. M. (2010). Childhood maltreatment, depressive symptoms, and body dis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binge eating disorder: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3(3), 274-281.
- Enright, R. D.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 Values*, 40(2), 107-127.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irburn C. G., Cooper P. J., & Shafran, R. (2003).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eating disorders: a 'transdiagnostic' theory and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5), 509-528.
- Fassino, S., Daga, G. A., Piero, A., Leombruni, P., & Rovera, G. G. (2001). Dropout from brief psychotherapy in anorexia nervosa.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1(4), 200-206.
- Felts, W. M., Parrillo, A. V., Chenier, T., & Dunn P. (1996).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ve weight and self-reported weight loss activities: Analysis of 1990 YRBS (Youth Risk Behavior Survey) national data. *J Adolesc Health*, 18(1), 20-26.
- Fredrickson, B.,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oldfein, J. A., Walsh, B. T., & Midlarsky, E. (2000). Influence of shape and weight on self-evaluation in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435-445.
- Grabhorn, R., Kpp, W., Gitzinger, I., von Wietersheim, J., & Kaufhold, J. (2003). Unterschiede zwischen weiblichen und männlichen Patienten mit einer Essstörung-Ergebnisse der multizentrischen studie(MZ-Ess). *Psychotherapie Psychosomatik Medizinische Psychologie*, 53, 15-22.
- Halling, S. (1994). Shame and forgiveness. *Humanistic Psychologist*, 22, 74-87.
- Han, J. Y. (201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moral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focused on empathy, guilt and gra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Harter, S. (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S. Feldman and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wkins, R. C., & Clement, P. F. (1984). *Binge eating: Measurement problems and a conceptual model*. In R. C. Hawkins, W. J. Fremouw, & P. F. Clement (Eds.), *The Binge-Purge Syndrome*. 229-251. New York: Springer.
- Hayaki, J., Friedman, M., & Brownell, K. D. (2002). Shame and the severity of bulimic symptoms. *Eating Behaviors*, 3, 73-83.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Eating disorders treatment statistics*.
- Heatherton, T. F., & Baumeister, R. F. (1991). Binge eating as escape from self-awarenes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86-108.
- Herman, C. P., & Polivy, J. (1988). *Restrained eating*. In A. Stunkard (Ed.), *Obesity*. pp.208-225. Philadelphia: Saunders.
- Herzog, D. B., Keller, M. B., & Lavori, P. W. (1988). Outcom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 osa-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6(3), 131-143.
- Hogan, R., & Cheek, J. (1983). Self-concepts, self-present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 2, 249-273.
- Johnson, C., & Larson, R. (1982). Bulimia: an analysis of moods and behavior. *Psychosomatic Medicine*, 44, 341-51.
- Joos, A. A., Gille, M., Hartmann, A., Unterbrink, T., Wetzler-Burmeister, E., Scheidt, C., Waller, E., Bauer, J., Wirsching, M., & Zeeck, A. (2012). Emotional perception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in comparison with depressed patien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6), 468-475
- Ka, I. S., & Hyun, M. H.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dysfunction, shame pronen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bulimic behaviors in college femal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209-223.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New York; Springer.
- Kim, G. S. (1999). The forgiveness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Kim, H. Y., & Park, K. H. (2009). The relations of perfectionism, impulsivity, diet, and binge ea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73-88.
- Kim, J.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guilt,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forg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Y., & Kwon, S. M.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orgiveness trait scale. Seoul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8(1), 239-261.
- Kim, O. S., & Yoon, H. S. (2000). The study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control behaviors among high school girls with normal body weight. *J Korean Acad Nurs*, 30(2), 391-401.
- Kim, Y. B. (2009). A study on the curriculum plan for adolescent emo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 89-110.
- Lee, I. S. (1997). *Effect of dietary restraint on eat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Lee, J. E. (2000). *The effect of short-term psychoeducational program on binge ea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H., Jo, H.-H., Shin, M.-Y., & Kim, J.-K. (2008).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limic women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anorexia nervos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7(4), 362-368.
- Lee, M. J., & Moon, B. S.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of adolescence. *Journal of Physical Growth and Motor Development*, 8(1), 97-107.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M., Alessandri, S.,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 630-638.
- Lowe, M. R., Gleaves, D. H., Disimone-Weiss, R. T., Furgueson, C., Gayda, C. A., Kolsky, P. A., Neal-Walden, T., Nelsen, L. A., & Mc-Kinney, S. (1996). Restraint, dieting, and the continuum model of bulimia nervos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08-517.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R. (2002).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5(4), 909-916
- Mackinnon, S. P., Sherry, S. B., Graham, A. R., Stewart, S. H., Sherry, D. L., Allen, S. L., Fitzpatrick, S., & McGrath, D. S. (2011). Reformulating and testing the perfectionism model of binge eating among undergraduate women: A short-term,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630-646.
- Mallick, M. J. (1983). Health hazards of obesity and weight control in childre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3, 78-82.
- Mary, L. (2009). *Eating disorders and magical control of the body: Treatment Through Art Therapy*. Routledge.
- Mathers, C. D., Vos, E. T., Stevenson, C. E., & Begg, S. J. (2000). The Australian burden of disease study: Measuring the loss of health from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2, 592-596.
- Mauger, P. A., Perry, J. E., Freeman, T., Grove, D. C.,

- McBride, A. G., & McKinney, K. (1992). The measurement of forgiveness: Preliminary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1*, 170-180.
- McCabe, M. P., & Vincent, M. A. (2003). The role of bio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 in disordered eating among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6*, 43-54.
- McCullough, M. E. (2001). *Forgiveness: Who does it and how do they do it?*. Blackwell Publishers Inc.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Awareness about the appearance of youth and health level survey*.
- Mirola, W. A. (1999). A refuge for som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involvement and depression. *Sociology of Religion, 60*(4), 419-437.
- Murray, C., & Waller, G. (2002). Reported sexual abuse and bulimic psychopathology among nonclinical woman: The mediating role of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186-191.
- Nelson, C. J., Rosenfeld, B., Breitbart, W., & Galiotta, M. (2002). Spirituality, religion, and depression in the terminally ill. *Psychosomatics, 43*(3), 213-220.
- Park, J. Y., Shin, M. S., & Kim E. J.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and disordered eat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663-679.
- Park, M. H., & Choi, Y. S. (1998). A survey on weight control diets practiced by college women in taegu and kyung buk.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4*(2), 200-211.
- Park, S. H. (2001). A study on dieting behaviors and related factor among normal or low-weight middle school girls in Seoul. *J Korean Soc School Health, 14*(1), 115-130.
- Poloma, M. M., & Gallup, G. H. (1991). *Varieties of praysers*. Philadelphia,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 Ranganadhan, A. R., and Todorov, N. (2010). Personality and self-forgiveness: The roles of shame, guilt, empathy and conciliatory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1-22.
- Ryu, H. R., Lyle, R. M., & McCabe, G. P.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concerns and unhealthy eating patterns among young korean females. *Eating Disorders, 11*, 129-141.
- Ryu, S. Y. (1998). *The study of relation of guilt and sham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symptom: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5-324.
- Sanftner, J., & Crowther, J. H. (1998). Variability in self-esteem, mood, shame and guilt in women who bing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391-397.
- Seol, H. J. (2010).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eauty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growing generation concerning appear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J. H. (2005). *Develop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self-esteem and adaptation th the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oemaker, A., & Bolt, M. (1997). The Rokeach value survey and perceived christian values. *Journal of Psychology & Theory, 5*, 139-142.
- Shorter Gooden, K., & Washington, N. C. (1996). Young, Black, and female; The challenge of weaving an identity. *Journal of Adolescence, 19*(5), 465-475.
- So, W. H. (2009). The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on binge eating among bulimics: Comparisons among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419-432.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825-48.
- Stice, E., & Heather, E. S. (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985-993.
- Stice, E., Hayward, C., Cameron, R. J. D., & Taylor. C. B. (2000). Body image and eating related factors predict onset of depression in female adolesc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2000), 439-444.
- Stice, E., Ziemba, C., Margolis, J., & Flick, P. (1996). The

- dual pathway model differentiates bulimics, sub-clinical bulimics, and controls: Testing the continuity hypothesis. *Behavior Therapy*, 27, 531-549.
- Strelan, P. (2007). The prosocial, adaptive qualities of just world beliefs: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forg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4), 881-890.
- Striegel-Moore, R. H., Franko, D. L., Thompson, D., Barton, B., Schreiber, G. B., & Daniels, S. R. (2005). An empirical study of the typology of bulimia nervosa and its spectrum variants. *Psychological Medicine*, 35, 1563-1572.
- Stri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8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for bulimia. *American Psychologist*, 41, 246-263.
- Tangney, J. P. (2002). *Perfectionism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99-2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US: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Virginia.
- Taranis, L., & Meyer, C. (2010). Perfectionism and compulsive exercise among female exercisers: High personal standards or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1), 3-7.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181-183.
- Thompson, R. A. (1989). *Causal attribution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pp.117-1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ylka, T. L., & Subich, L. M. (1999). Explor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eating disorder continuu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68-276.
- Vitousek, K., & Manke, F. (1994). Personality variables and disorders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37-147.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 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Wiseman, M. A., Gray J. J., Mosimann, J. E., & Ahrens, A. H. (1992). Cultural expectations of thinness in women: An upd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1, 85-89.
- Wittchen, H. T., & Jacobi, F. (2005). Size and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Europe -a critical review and appraisal of 27 studies. *Europe Neuropsychopharmacology*, 15, 357-376.
- Wohl, M. J. A., Deseha, L., & Wahkinney, R. L. (2008).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1), 1-10.
- Zechmeister, J. S., & Romero, C. (2002). Victim and offender accounts of interpersonal conflict: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forgiveness and un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675-686.

□ 접수일 : 2013년 11월 14일

□ 심사일 : 2013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2일